韓國
日本
民俗學

동백의 힘

고이케 준이치小池淳一
국립역사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계 준교수

동백의 힘

들어가면서

식물을 둘러싼 민속은, 자연과 인간을 둘러싼 여러 가지 관계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다. 거기에는 식물의 재배나 이용이라는 직접적인 관계에서, 신앙이나 의례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문제까지도 포함된다. 더욱이 설화나 속신의 영역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어서, 각각의 위상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식물은 인간과 관련됨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러한 의미를 해명할 때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가지는 재배, 의례, 설화라는 인간의 측면에서 주목하여, 잘 재배된 식물, 의례에 사용되는 식물, 설화 속에 등장하는 식물 등을 넓게 검토하는 방법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느 특정한 식물에 주목하여 그것이 인간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의미를 지녀왔는지 생각하는 방법이다. 즉, 전자는 민속적 관점에

서 식물을 생각하는 것이고, 후자는 식물적인 관점에서 민속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취해, 동백이라는 나무가 일본열도의 민속사상(事象)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용되어 왔는지를 통찰하고, 거기서 이끌어낸 민속의 특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즉, 동백이 생활이나 생업 속에서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지를 논하고, 이어서 제사에 관련된 문제, 더 나아가 설화나 속신 등에서 보이지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1. 동백의 이용과 풍토

시즈오카현(縣) 오마에자키(静岡県御前崎)에서는 겨울에 부는 서풍을 막기 위해 집 주위에 담을 쌓거나 숲을 만들어 왔다. 이 때 조엽수照葉樹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동백은 열매에서 기름을 얻어 머릿기름이나 식용유로 사용해왔다(노모토, 野本1987:22-23). 같은 현 고텐바(御殿場)市 인노무라(印野村)는 후지산 동쪽 기슭의 집락으로, '후지오로시'라 불리는 후지산의 산바람을 막기 위해 울타리에 동백을 사용해 왔다. 규슈의 미야자키현(宮崎県) 니시모로카타군(西諸県郡) 다카하루초(高原町)에서도 다카치호(高千穂)의 매서운 고개바람을 동백 울타리로 막고 있었다(노모토, 野本同前:426-427).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동백을 이용한 지역이 시즈오카현 아타미(熱海)의 하쓰시마(初島)다. 이 섬에서는 밭을 동백 울타리로 구획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그 울타리의 동백 열매

를 짜서 머릿기름이나 튀김기름으로 만들어 온천 지역인 건너편의 아타미(熱海) · 이토(伊東) 지역에 팔러 갔다고 한다(노모토, 453-454).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집이나 밭 주위에 동백을 심고 동시에 그 열매까지 이용하는 두 가지 이득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하게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닌, 기름 생산까지 생각하여 동백이 선택되었던 것이다.

이즈 제도(伊豆諸島)에서도 동백의 이용이 활발하였는데, 특히 니이지마(新島)의 와카사토(若郷)에서는 연공동백(年貢椿)이라고 해서, 마을 전체가 소유한 산의 동백을 며느리나 딸들이 채집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것은 초가을의 3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처음 이틀은 마을 일의 시작을 알리는 소라고둥 소리를 신호로 한 가구에 한 명씩 산에 올라가 동백 열매를 딴다. 산에는 집마다 '가아(주부)의 보석 나무'라 불리는 나무가 있는데, 먼저 거기서 열매를 딴 다음에 다른 나무에서 딴다. 3일째가 되면 마을 사람 모두에게 산이 개방되어, 신사나 사원, 청년단의 비용으로 쓰일 동백 열매를 딴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성들의 노동이었다.

이렇게 채취된 동백 열매에서 기름을 짜고, 그 기름은 머릿기름으로 쓰는 것 이외에도 묘 앞의 등화나 신전의 등불을 켜는 데 매일 쓰였다. 또, 기일의 신(明神)등에게 올리는 음식으로 동백기름으로 튀긴 떡을 쓰는(사카구치, 1980) 것에도 주목하기 바란다. 기일의 신이란, 날을 정해 이즈(伊豆)의 섬들을 찾아가는 무서운 신으로, '니주고니치사마(二十五日様: 25일에 오신 신령이란 뜻)'나 '히이미사마(日忌様: 정월 24, 25일을 의미하는 히이미 날에 오는 신령이란 뜻)' 등으로 불렸다. 그 신이 방문하는 동안 인간들은 집 안에 숨어 행동을 조심해야만 했다(야마구치, 1944). 이렇게 무서운 신에게 바치는 공물로서

동백기름을 사용한 음식이 사용되었던 것은, 동백기름에 높은 가치가 있다고 간주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동백은 일본의 도카이(東海: 시즈오카, 아이치, 미에현을 포함한 일본의 중부 지방) 지방이나 이즈(伊豆)의 섬 등지의 풍토에 맞게 가옥을 지키는 수목으로 심어져 온 것 이외에도, 그 열매에서 얻을 수 있는 기름의 이용가치가 높았다. 또한 연중행사 때도 동백기름이 빈번하게 사용된 경우가 있었는데, 생활면뿐만 아니라 제사 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도호쿠(東北)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잠수어업에 동백기름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미야기(宮城)현의 케센누마(気仙沼) 주변에서는 해녀들이 잠수하기 전에 몸에 동백기름을 발랐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체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동백기름을 해수면에 뿌리면 파도가 가라앉고 바다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다 속에서 조개를 건져 올리는 해녀들의 작업이 쉬워지는 것이다. 여기에는 꼭 동백기름만이 아니라, 생선이나 조개의 내장 기름이나 호두, 유채 씨 등의 기름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다만, 해녀들 가운데에는 동백기름을 쓰는 것은 비밀 방법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동백 열매는 육지 생활뿐만이 아니라 바다 속의 생업활동에도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동백의 이용법에 주목한 노무라 준이치(野村純一)는 "해변의 동백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배되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진다(노무라, 1989:151-155). 이 견해는 일찍이 야나기다 구니오가 동백은 봄나무라는 논고에서 원래 북쪽에서만 피던 동백이 이 나라 여성 종교자에 의해 널리 퍼졌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가설(야나기다, 1941)을 보강

하는 것이다.

동백은 일상생활과 생산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을 기반으로, 제사나 신앙의 민속으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동백과 제사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동백 모시기

동백을 사용하여 불상을 조각했다는 흔적이 각지에 남아 있다.

후쿠오카현 지쿠시노시(筑紫野市) 후쓰카이치(二日市)의 부조지(武蔵寺)의 본존은 약사여래이지만, 협시(脇侍)의 십이신장(十二神将)과 함께 동백나무로 조각되었다고 한다. 또 같은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조난구(城南区)의 쇼카쿠지(正覚寺)의 천수관음은 흰 동백으로 만들어져있다. 중국에서 건너 온 清賀라는 승려가 동백나무 열매에서 기름을 짜는 것을 전했다고 전해지는데, 통칭 유산관음(油山観音)이라 한다. 이 유산관음과 같은 흰 동백나무로 조각된 걸로 여겨지는 것이 후쿠오카현 마에바루시(前原市)의 센뇨지(千如寺)의 천수관음으로, 이쪽은 뇌산관음(雷山観音)이라 불리고 있다(아베 · 안도 1980:54-57). 동백 열매를 이용하는 기술이 대륙에서 전해져 온 것, 더불어 동백나무로 불상을 조각하는 것도 함께 전해져 왔다는 점이 흥미롭다. 동백기름을 짜는 기술과 동백나무 그 자체에 대한 신앙이 불가분의 관계였을 가능성도 느낄 수 있다.

니가타현 미나미우오누마시(南魚沼市) 우라사(浦佐)의 후코지(普光寺)는 우라사의 비샤몬도(毘沙門堂: 교토에 있는 천태종의 본산 사원)로 이름 높은데, 이 비사문천(毘沙門天)도 동백으로 조각되었다고 한다.

북월설보(北越雪譜) 2편중 1(天保 12년, 1841 간행)에 "비샤몬의 키는 1미터 정도로, 옛날 동백연못이라는 마을에 있었던 큰 동백나무를 잘라 만든 것이라고 한다. 작자는 알 수 없다. 그 재료가 동백이었으므로 이 지역에서는 동백나무를 땔감으로 쓰면 반드시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오카다 교정, 1936: 207)라고 기술되어 있다.

동백으로 불상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것은 불상 그 자체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한다기 보다, 동백이라는 나무가 가지는 종교적인 의미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신성한 나무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땔감으로 쓰는 것을 피해왔던 것이다.

같은 니가타현에서도 동해(일본명 일본해)에 떠 있는 구리시마(粟島)에서는 동백을 정월 가도마쓰(정월에 문 앞에 장식하는 소나무)로 써왔다. 가도마쓰라기 보다 가도쓰바키(문 앞에 장식하는 동백)가 맞는 말이겠다. 구리시마의 서쪽의 부곡釜谷지역에서는 동백을 아오키라고 부르는데, 정월 장식으로 썼다고 한다(키타미, 1966: 214). 여기에서는 아오키라고 부른다는 점에서 상록수로서 동백의 성질이 존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도호쿠 지방은 기후가 한랭하여 동백의 생육에 적합한 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비교적 따뜻한 해안가를 중심으로 몇 개 군락이 있어서, 그곳에서는 동백과 관련한 제사적 민속이 전해져 온다. 이 점에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아키타현 오가男鹿반도의 신잔真山에서는 신사에 봉헌하는 다마쿠시(신사에 바치는 제물 중 하나)에 동백을 사용하였다고 한다(노모토, 앞의 책426). 또한 북쪽인 아오모리현 나쓰도마리(夏泊)반도의 히가시타자와(東田沢)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사에 바치는 다마쿠시는 동백만을 썼다.

이 나쓰도마리 반도의 동백 군락과 그 안에 자리 잡은 동백나무 신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야나기다 구니오의 동백은 봄나무(야나기다, 1941)라는 논고를 통해 주목 받고 있다. 야나기다는 이들 동백이 자연스럽게 군락을 형성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위적인 활동의 결과가 아닐까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 때 주목한 것이 이 동백을 둘러싼 신사의 기원에 관한 전설이다.

관정寬政 7년(1795년, 칸세는 연호)에 이 지역을 방문한 스가에 마스미(菅江真澄)에 따르면, 그 전설은 다음과 같다.

> 이 해안마을 여성이 다른 나라에서 온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 남자는 다음에 이곳에 올 때는 머리에 바르는 동백기름을 갖고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남자는 오지 않았다. 여자는 남자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비관하여 자살해버렸다. 3년 만에 남자가 이 마을에 찾아와, 그것을 듣고는 놀라 비탄하며 여자의 묘 주변에 동백 열매를 뿌렸다고 한다. 지금의 동백 숲은 그 때의 열매가 성장한 것이다. 이 동백 꽃을 꺾으면 여성이 나타나 그것을 저지한다고 하기에 신으로 모신 것이 이 동백나무 신이다(우치다, 미야모토 편1972:15-16을 요약)

야나기다는 이 전설과 동해안(일본명 일본해안)에 산재하는 동백 군락의 존재를 통해, 설국의 동백은 봄나무로 사랑받았고, 이 동백을 들고 다닌 여성 종교자가 그것을 널리 퍼트린 것이 아닐까라고 추론하였다. 동백 열매는 해류에 의해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한 종교적인 직능자가 직접 들고 전한 것으로, 현재의 동백은 그 자취일 것이란 얘기다.

이러한 견해는 매우 아름답긴 하지만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

려워 보인다.

이 지역에 있어서 동백나무 신(椿明神)에 관한 사료와 전래되는 내용을 다시 검토해보면, 아래와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이 동백나무 신은 나쓰도마리 반도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을 한 닛코인(日光院)이라는 슈겐(修験:修験道를 닦는 사람)이 관리해 왔다. 그리고 이 닛코인의 기록 '平内御領村々社堂開基(享保10년, 1752)'에 따르면, 明暦(1654~1658) 시대에 이 지역의 가헤에(嘉兵衛)라는 자의 아내에게 매일 밤 신이 내려와, "동백 큰 신령(椿大明神)으로 모시라"고 알린 것이 시작이라고 한다.

즉 이렇게 당시 지배층이 남긴 사료에 따르면, 이 동백나무 신은 신의 계시託宣에 의해 모셔지기 시작한 것으로, 동백꽃이나 열매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

이 닛코인의 기록은 어디까지나 현실 사회에 일어난 일을 적었을 뿐이다. 즉, 여성에게 신이 내려와 신사에 모실 것을 요구했다는 얘기로, 왜 모셔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돼 있지 않다.

여기서 대담한 추측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고자 한다.

가헤에(嘉兵衛)의 아내에게 내려온 신은 단순히 모실 것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왜 모셔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던 것은 아닐까? 그 설명 내용이 사실은 스가에 마스미가 기록했고 야나기다 구니오가 주목했던 앞의 전설은 아니었을까? 슬픈 사랑의 결과로서 북쪽 지역에까지 퍼지게 된 동백나무 전설은 실제 사건 혹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여성의 입을 통해 신의 계시의 형태로 나타난 이야기는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 동백나무 신의 전설이 생겨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의 반영이 아니라 –물론 일반적으로 전설은 역사적 사실의 민중적인 표현인

경우도 적지 않으나 – 신의 계시(탁선)라는 행위에 바탕을 둔 것이 었음을 강조하고 싶다. 이 지역에 전해지는 비련의 이야기는 샤머니즘에 토대를 둔 환상적인 것으로, 실제 역사적인 사실에서 발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샤머니즘에 필요한 나무로서 동백이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모셔지며 보호받아 왔다고 생각해 두고자 한다(코이케 2006).

이러한 전설과 그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 동백이 단순한 수목이 아니라 신의 계시(탁선)에 필요한 것으로 샤머니즘과 깊게 관련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백으로 불상을 만든 것만 봐도 신성한 나무라는 생각을 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구리시마에서 정월에 동백을 장식하는 것도, 새로운 시간의 시작을 알리는 나무로서 동백의 위상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백은 단순한 수목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의미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여겨져 온 듯하다. 다시금 그러한 관점에서 동백을 사용한 의례나 동백에 관련된 속신을 찾아보고자 한다.

3. 동백과 관련된 의례와 속신

동백을 둘러싼 의례로서 인상적인 설화가 '니혼쇼키(日本書紀)'의 게코(景行)천황 12년 10월 기사에 실려 있다. 규슈의 오이타(大分)에서 천황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쓰치구모(土蜘蛛)라는 선주민족이 반란을 일으켰다. 천황은 동백나무로 망치를 만들어 그것을 병졸에게 무기로 쥐어주며 산을 뚫고 풀을 쳐 내서 반란군을 퇴치하였다고 한다. 강력한 적을 동백 망치로 부쉈다는 설화이다.

이것과 거의 같은 설화가 지명地名의 유래로서 '분고노쿠니후도키(豊後国風土記, 豊後国는 지금의 오이타현 일부)'의 오노군(大野郡)에 대한 설명에 실려 있다. 쓰바키(海石榴, =동백)市, 지다(血田)와 같은 지명의 기원설화이다.

옛날 게이코천황이 오셔서 쓰치구모를 토벌하자고 생각하시어 부하에게 말씀하시고, 동백 나무를 베어 망치를 만들어 무기로 삼고, 곧바로 용맹한 병사를 골라 무기인 망치를 내리시어, 산에 구멍을 뚫고 풀을 쓰러뜨리며 전진해, 쓰치구모를 습격했는데, 그 전부를 벌하고 죽이셨다. 흐르는 피가 넘쳐 복사뼈가 묻힐 정도의 깊이가 되었다. 그 망치를 만든 곳을 츠바키(동백)시라고 하고, 피가 흐른 곳을 지다(血田)라 하였다(우에가키 세쓰야 교정 및 각주 1997:295를 요약).

이 '풍토기'의 설화에 따르면, 산에 구멍을 내고 풀을 베었다는, 대지를 완전히 바꾸어버릴 정도의 전투에 사용된 도구로서 동백 망치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망치라는 '때리는' 도구의 움직임에서 그러한 강한 힘을 연상한 것이겠지만, 그 재질이 특히 동백이 아니면 안 되었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백은 그만큼 힘을 가지는 나무였던 것이다.

이러한 고대의 설화는 직접 민속문화 문제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옛 시대의 감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같은 성질의 자료로서 천황가와 관련된 의례인 우즈에(卯杖, 정월에 행하는 행사)에 동백이 사용된다는 것도 짚어두고자 한다. 이는 한 해의 시작에 있어서 정월 첫 토끼날(卯の日)에 천황에게 지팡이를

진상하는 의례이다. 이 때 호랑가시나무나 대추, 복숭아, 매실 등과 함께 동백이 지팡이에 사용되었다. 더욱이 우즈쓰치(卯槌)라는 망치도 함께 첨가되는 경우가 있었다(스가와라, 1992:38-39).

'건구삼년 황태신궁연중행사(建久三年皇太神宮年中行事)'라는 기록에서는 우즈에는 '동백을 길이 5자 정도로 잘라서 윗가지와 아래 가지를 5치 정도 깎아 낸 후, 종이를 말 수 있는 지팡이' '속군서류종완성회편 1902:365-366' 이라고 나와 있다. 우즈에는 귀신을 쫓고,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의례였기(劉2002:18) 때문에, 가공된 동백은 그러한 힘을 가진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신년에 행하는 의례에 동백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는 먼저 논의한 니가타 현 구리시마(粟島)의 동백을 정월에 장식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은 아닐까?

또한 "때리는" 행위에 동백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가고시마 현 사쓰마(薩摩)반도에서 행해진 이세코(伊勢講, 주로 이세신궁을 참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나 모임 등을 일컫는데, 가고시마 지역에서는 다 같이 축제날 먹고 마시는 모임을 통칭) 때는, 사당을 다음 축제를 여는 집에 넘겨줄 때, 변장을 하고 맞이하는데, 사당을 험하게 던지거나 발로 차거나 한다. 이렇게 신이 깃들어 있는 사당을 난폭하게 다루는 것 자체가 기묘한 일인데, 이 때 동백이나 산다화 줄기로 사당을 마구 두드리고 때리는 것이다(오노, 1988).

이렇게 제사 때 정중하게 비는 것이 아니라, 때린다는 행위에 관해 특별히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본 고의 관심에서 보면 동백 줄기로 때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떤 나무의 줄기를 써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동백 가지를 사용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다음 마쓰리를 하는 집에 건넬 때에 이런 행위가 벌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상태로 넘어간다는 것으로, 경계를 통

과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상태에 있어서의 의례에 동백나무가지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월이라는, 묵은해가 끝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세시 의례에 동백을 사용하는 것과 공통되는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 동백을 의례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동백에게서 어떤 힘을 느껴왔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힘을 인정한다면, 반대로 동백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피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일본 동북지방의 태평양 연안, 산리쿠(三陸)지방에서는 배의 노도艪櫂를 세워두는 아마라는 부분에는 동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카와시마, 2000、2009:274). 배 안의 중요한 곳에는 동백의 사용을 피해 왔다. 더욱이 서쪽의 나가사키현 니시소노기군(西彼杵郡) 히라시마(平島)·에노시마(江島)에서는 배를 만들 때 동백나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굳이 사용하게 되면 다친다고 하였다(사쿠라다 1980:162). 바다로 나갈 배 전체를 동백으로 만드는 것은 꺼림칙하게 여겼던 것이다. 이것은 동백으로 일부러 불상을 만들어 절을 하는 것과 대비시켜서 생각해도 좋을 문제이다.

육지 생활에서도 동백을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했다. 산리쿠지방에서는 배 일부분에 동백을 사용하는 것을 피했는데, 짚을 내리쳐 부드럽게 만드는 망치에 동백을 사용하는 것도 피했다고 한다 (카와시마 2000). 그리고 그런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옛날이야기가 전해진다.

덴덴코부시라는 것은 귀신 이름이다. 어느 절에 귀신이 나와서 곤란해

하고 있었다. 사람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절에 산에 사는 수행승이 찾아와 주지가 되어 주겠다고 했다. 사람들은 전에 있던 주지승도 무서워하며 도망갔다고 충고했다.

밤이 되자,

"안녕하시오. 덴덴코부시 계신지?"라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신지요?"라고 묻자, "남산의 외눈박이새이올시다"라고 귀신이 말했다. 이윽고 또

"안녕하시오. 덴덴코부시 계신가요?"라는 소리가 들렸다.

"예, 있소이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는 당신은 누구시오?"하고 묻자

"북산의 말머리올시다."하고 목소리만 들렸다. 그 다음에도

"안녕하시오. 덴덴코부시 계십니까?"

"예, 있소이다. 누구시오?"

"동산의 흰 원숭이" 또 소리만 내고 돌아갔다. 다음으로 "서산의 닭발 세 개"도 와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단가(檀家)의 사람들을 불러 절 안을 살펴보자, 덴덴코부시, 즉 동백으로 만든 볏짚을 패는 망치가 있었다. 동백으로 망치를 만들면 귀신이 되는 것이었다. 그것을 태워버리자 귀신은 다음날 밤부터 오지 않게 되었다(카와시마 2000, 보고된 것을 요약하고 표준어로 나타내었다).

이 옛날이야기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동백으로 만든 망치는 귀신이 된다는 것만은 아니다. 그것이 줄줄이 귀신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 얘기는 동백으로 만든 망치가 귀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위험한 것으로, 보통 삶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피해야 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다시 한번, '니혼쇼키'나 '분고노쿠니후도키'의 설화를 떠

올려볼 필요가 있다. 거기서는 악의 존재를 퇴치하기 위해 일부러 동백으로 망치를 만들었던 것이다. 궁중행사의 우즈쓰치는 한 해가 바뀌는 때, 신년을 맞이하기 위한 의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그 재료가 동백이었다. 가고시마현의 이세코에서도 제사 장소를 다음 곳으로 옮길 때에는 동백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동백의 성질은 어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 다른 세계와의 접점이나 경계에 있어서 표출되는 것으로 총괄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은 자연 그대로의 동백은 아니었다. 사람의 손에 의해 잘려져 가공된 것이다. 이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공통점은 "때리기"위한 도구로 변화했을 때, 그 힘을 발휘했다는 점이다.

앞 절에서 동백나무 신에 대하여 논할 때, 동백이 신의 계시(탁선)에 관련된 나무이고, 샤머니즘과의 관련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었다. 이 점도 이 세계와 신령의 세계와의 접점, 경계에 관련되었다는 면에서 공통된다. 사실 도호쿠 지방의 샤먼인 이타코나 와카들이 구치요세(口寄せ, 사자의 영을 부르는 행위)를 하거나 점을 칠 때, 동백으로 만든 망치를 툇마루 아래에 숨겨두면 점이 안 맞는다는 사실에 야나기다 구니오(柳田国男)는 주목했다(야나기다 1942:227-228). 동백 망치는 샤먼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끝맺으며

동백이라는 나무가 민속 문화 속에서 해 온 역할을 생업, 생활, 제사, 설화, 속신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것은 동백에서 기름을 짜는 행위나, 강한 바람을 막기 위한 실용적

인 나무였다는 것뿐 아니라 신비적인 면도 여럿 있었으며, 일상에서 터부시된 점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 신비한 면을 이론적으로 정리해보면, 단순한 목재가 아니라 때리는 행위를 위한 도구로 변신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리고 동백은 그렇게 함으로써 경계를 뛰어넘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앞으로는 이러한 힘을 갖는 나무가 동백뿐인지, 넓게는 동아시아 세계를 대상으로 검토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동백만이 특수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속 문화 속에서는 그것에 유사한 움직임을 갖는 것은 적지 않을 터이다. 어떤 식물과 공통점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살핌으로써 식물 민속이 제기하는 깊은 의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植垣節也校注, 1997,『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５ ·風土記』, 小学館.

内田武志 · 宮本常一編, 1972,『菅江真澄全集 (第3巻)』, 未来社.

岡田武松校訂, 1936,『北越雪譜』, 岩波書店[文庫.

小野重朗, 1988,「伊勢神を叩く―薩摩半島の伊勢講―」,『鹿児島民俗』88:2-6, 鹿児島民俗学会.

川島秀一, 2000,「気仙沼の口承文芸 · 107 · テンデンコブシは居ませんか」,『三陸新報』(2000年5月20日) :6.

———— , 2009,「浮鯛抄」をめぐる文字と口頭の伝承」, 笹原亮二編,『口頭伝承と文字文化―文字の民俗学 声の歴史学―』:249-274, 思文閣出版.

北見俊夫, 1966,「新潟県岩船郡粟島」, 日本民俗学会編,『離島生活の研究』:179-232, 国書刊行会.

小池淳一, 1989,「椿の伝承」, 木本好信編,『古代の東北―歴史と民俗―』:203-217, 高科書店.

————, 2006,「椿をめぐる伝説と祭祀―青森県夏泊半島の椿明神―」, 諸岡道比古編, 『半島空間における民俗宗教の動態に関する調査研究』:1-11, 弘前大学人文学部.

坂口一雄, 1980,「年貢椿と什物木―若郷村を中心として―」,『伊豆諸島民俗考』: 217-220, 未来社.

櫻井 満, 2000,『櫻井満著作集 (第7巻) 万葉の花』, おうふう.

桜田勝徳, 1980,『桜田勝徳著作集(第1巻)』, 名著出版.

菅原嘉孝, 1992,「卯杖ならびに卯槌について」,『國學院雑誌』93(8):36-52.

続群書類従完成会編, 1902,『続群書類従第一輯上』, 続群書類従完成会.

長澤 武, 2001,『植物民俗』, 法政大学出版局.

野村純一, 1989,「椿は何故,「春の木」か―,「八百比丘尼」と「常陸坊海尊」―」, 荒木博之ほか編,『日本伝説大系(別巻 1・研究編)』:122-155, みずうみ書房.

野本寛一, 1987,『生態民俗学序説』, 白水社.

柳田國男, 1941,「椿は春の木」,『柳田國男全集(第12巻)』:223-228, 筑摩書房.

山口貞夫, 1944,「伊豆諸島の正月廿四日行事」,『地理と民俗』:153-173, 生活社.
四柳英子, 2000,『椿と日本人―江戸時代を中心としたその美意識―』, 能登印刷出版部.
劉　暁峰, 2002,「卯杖考」『古代日本における中国年中行事の受容』:14-36, 桂書房.
渡辺武・安藤芳顕, 1980,『花と木の文化　椿』, 家の光協会.